

노사상생만이 해법이다

① 상생·공멸 기업 사례

노사화합 행남자기 '성장가도' 고비용 저효율 GM '몰락의 길'

기아 '신차효과' ... 노조 발목 잡아선 안돼

목포에 있는 (주)행남자는 노사의 상생문화를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한 곳이다.

경영철학도 노사화합을 강조하는 협심동력이다. 이 회사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펴, 청사 아래 줄곧 노사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21일 노동부가 선정하는 '올해의 노사화합 우수기업'으로 뽑혔고 지난해 6월에는 노사상생 양보교섭 기업 인증도 받았다.

행남자가 노조는 사측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963년 출범했다. 고(故) 김준형 2대 회장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원들의 대표구조인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노조설립을 독려했다.

수십년 이어진 깊은 노사문화는 직원들의 자긍심으로 이어져 노조 위원장이 직접 청와대 오찬장에서 회사 제품을 홍보·판매할 정도가 됐다. 단체협약에 노조의 연간

관매 목표액을 정하는 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일상이다.

특히 회사는 경영효율화에 따른 공장폐쇄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되자 김 가공 사업을 시작해 일터를 제공하기도 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회사가 4대째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사 상생의 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성노조'의 대명사이던 금호타이어도 노사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사는 지난 4월 26일 공동평화선언문을 발표, 노사화합을 결의했다. 노사는 선언문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노사관계와 쟁의 행위 없는 평화적 사업장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 고객과 구성원, 회사의 가치 확장을 위해 노력,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고

용인정은 물론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6일간의 파업(생산차질 1만4500대, 매출손실 3160억원, 협력업체 손실 4000억원)으로 평택 지역 경제를 마비시켰던 쌍용자동차도 지난달 '노사 한마음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는 항구적인 노사평화 유지, 유연한 생산라인 운영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및 판매 증진 등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책임 실천, 고용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임금파크제 도입, 신 노동관계법에 입각한 각종 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반면 후진적인 노사관계 탓에 몰락의 길을 걸은 회사도 있다. 제너럴모터스(GM)다.

GM은 지난해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1위 자리를 내줬다. 78년만의 이변이다. 미국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GM의 몰락은 '고비용

저효율' 회사를 만든 노사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간에 걸친 경영 실패와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GM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질타했다. 노조가 과도한 임금과 연금, 의료보험 등을 따내면서 '저효율 고비용' 구조가 정착된 결과라는 것이다.

디자인 경영과 스포티지R·K5 등 신차 효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기아차도 노조가 발목을 잡는다면 GM처럼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아차는 모처럼 맞은 기회를 소모적 정치 파업으로 놓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GM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려들면서 회사의 몰락을 가져왔다"면서 "기아차가 GM의 실패를蹈습하지 않으면 하루빨리 후진적 노사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내 첫 고속주행 전기버스

22일 서울지역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간 국내 최초 고속주행 전기버스인 '일렉시티(Elec-City)'.

이 버스는 현대자동차가 순수독자기술로 개발했으며, 최고시속 100km/h, 1회 충전시 120km를 달릴 수 있다.

/연합뉴스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타당"

광주상의 포럼 ... 정치적·경제적 당위성 충분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상품거래소'의 광주 설립에 정치적·경제적 당위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제132차 광주경제포럼에서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는 "왜 광주 상품거래소인가"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증권거래소는 서울, 선물거래소는 부산에 설립돼 있는 만큼 대장간으로

로 호남에도 상품거래소가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설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부산 선물거래소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뤄졌다"며 "광주 상품거래소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임기 내 공

약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과 예산 확보 등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치적 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 "광주·전남은 상품거래소에 적합한 산동물의 생산이 가장 많고 녹색 친환경농업을 주제로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태양열·풍력·수력 등 친환경·기술주도형 에너지 생산의 적지"라는 점을 경제적 당

위성으로 제시했다.

광주상품거래소의 상장가능 품목

으로는 금·수입 옥수수·제초지수·해

상운임지수·기후 관련 제품·탄소배

출권 등을 꼽았다.

한편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

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주첨복권·

빙고 등 복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400억달러(한화 281조6400억원)어치나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 복권업체들은 높아진 당첨금을 노린 구매자가 급증한 덕분에 큰 수익을 챙겼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